

# 효성, 3분기 '어닝서프라이즈' 기록할 듯

(예상 뛰어넘는 깜짝 실적)

### 3분기 영업이익 2294억 예상...3년새 207% 늘어

### 유가하락 원자재가 절약...스판덱스 세계 점유율 30%

### 광주은행 영업이익 큰 폭 상승 '깜짝 실적' 기대

효성이 최근 잠정실적을 발표한 삼성전자에 이어 3분기 영업이익에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것으로 보여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효성, 롯데케미칼, 에스원 등 50여개 상장사가 최근 4년래 가장 높은 3분기 영업이익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2년 3분기 영업이익 748억원을 기록했던 효성은 올해 3분기 2294억원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3년 사이에 영업이익이 207%나 늘어난 것이다. 전문가들은 효성의 폭발적인 영업이익 증가는 3분기 유가 하락으로 원료인 프로판 등의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또 효성은 '섬유의 반도체'라 불리는 스판덱스 제품을 앞세워 전 세계 섬유시장에서 꾸준히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더욱 주목된다.

앞서 발표된 효성의 올 2분기 영업이익은 2550억원으로 분기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했다. 지난 1분기에도 2222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해 상반기에만 전년 동기(3042억원) 대비 약 56.8% 증가한 4772억 원을 기록했다.

효성은 지난 1992년 국내 최초로 스판덱스 자체 개발에 성공한 이후 20년 만에 세계 시장 정상으로 올라서며 효성의 세계시장 공략을 선도하고 있다. 효성의 스판덱스 브랜드인 '크레오라'(creora)는 중국, 베트남, 터키, 브라질 등 전 세계에

구축된 생산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세계 시장 점유율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스판덱스는 기능성 섬유이며 원래 길이의 5~7배 늘어나며 원상 회복률이 97%에 달해 신축성이 좋다. 고무줄보다 가벼운 동시에 본래의 탄성을 유지하는 특성이 뛰어나 란제리, 스타킹은 물론, 최근에는 청바지와 같은 데님(Denim)류, 기저귀, 아웃도어, 정장 의류에도 사용된다.

또 효성은 지난 2011년 브라질 스판덱스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내다보고 총 1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단행해 공장을 완공했다. 이후 2년 만에 브라질 내수 시장 점유율 50%를 석권하는 등 브라질을 중심으로 한 중남미 시장을 대상으로 한 판매를 늘려나가고 있다.

광주은행도 지난 9월 대비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100억원이었는데, 10월 6일 기준은 125억원으로 25.0%의 변화율을 보여 기대를 모으고 있다.

금융 전문가들은 효성에 이어 최근 3년 동안 내림세를 보였던 롯데케미칼의 3분기

영업이익도 올해 급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 3분기 영업이익 1422억원을 기록해 부진했던 롯데케미칼의 올해 3분기 예상 영업이익은 3772억원이다. 지난해보다 165% 증가한 수치다.

또 에스원은 지난 2012년 이후 영업이익 증가세가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3분기 예상되는 영업이익은 498억원으로 2012년(279억원)보다 78% 늘어난 전망이다.

이 밖에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도 올해 3분기 사상 최대 실적 기록을 갈아치울 것으로 보인다. 아모레퍼시픽(1788억원)과 LG생활건강(1731억원)은 3분기에 나란히 1700억원대 영업이익을 올리며 전년 동기보다 각각 15%, 21% 늘어난 전망이다.

두 회사 모두 중국에서 고성장을 거듭하고 있어서다. 아모레퍼시픽은 지난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중국에서 50% 이상 성장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019.53 (+13.69)

금리 (국고채 3년) 1.61% (0.00)

▼ 코스닥 674.97 (-4.86)

▼ 환율 (USD) 1159.00원 (-2.30)

## 광주서 세계 전력·에너지기술 대향연

### 12~14일 DJ센터 '빛가람 국제 전력기술 엑스포'



세계최초 전력분야 엑스포인 'BIX-PO 2015'가 광주에서 열린다.

한국전력(사장 조환익)은 본사가 이끄는 나주를 세계 에너지산업 허브(Hub)로 만든다는 '에너지밸리' 구축 계획의 하나로 오는 12~14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세계 최초 전력분야 엑스포인 '빛가람 국제 전력기술 엑스포(BIXPO : Bitgram International Exposition of Electric Technology) 2015'를 개최한다.

이번 국제행사는 전력분야 신기술과 최신 트렌드를 공유하고 미래 전력산업의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번 BIXPO에는 전세계 50여개국 2000여명의 전기·전력 분야 종사자와 전문가가 참가한 가운데 200여개 전시회, 국제 콘퍼런스, 전력회사 CTO 포럼 등이 개최된다.

특히 한국전력은 일반 시민들에게도 흥미로운 행사가 되도록 다양한 전시·체험 공간을 운영한다.

관람객들은 전력 신기술 발달로 달라

진 현재 생활을 '스마트 홈'과 '스마트 오피스' 공간에서 체험할 수 있다.

스마트 홈에 입장하면 전등, TV 등에서 사용되는 전력사용량이 계기에 표시되고 태양광을 통해 발전된 전기를 에너지저장장치(ESS)에 저장했다 가정에서 사용하고 남은 전력을 전력망으로 보내는 시스템 등을 체험할 수 있다.

스마트 오피스에서는 전기자동차를 타고 출근해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각 기기의 에너지 사용량이 실시간으로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으로 관리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한편의 전력통신망이 사물인터넷(IoT)과 결합해 만들어 내는 시너지 효과도 주목할 만하다. 전전에 부착된 감지기와 웨어러블 기기에 개인의 위치 정보를 보내 실시간 추적 가능해져 안심 귀가와 실종 예방이 가능해진다.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은 "빅스포는 전력기술의 미래로 가는 길과 전력산업의 당면과제 및 해결방안을 주제로 전력기술의 방향과 전략, 전력기술의 미래를 가능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이다"며 해외사업이나 기술교류에 관심 있는 국내기업과 전문가들에게 기술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獨 전기차 시장 홀린 '쏘울 EV'...글로벌 누적 판매 5천대

### 獨 점유율 25% 전기차 1위

### 8월 796대 팔려...유럽서 인기

### 충전 인프라 확대...국내 증가세

기아자동차의 전기차 모델인 쏘울 EV가 해외 시장의 인기에 힘입어 누적 5000대 판매를 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8월 기아차에 따르면 쏘울 EV는 지난 해 4월 출시 이후 올해 8월까지 5399대가 팔렸다. 국내 1177대, 해외 4222대로 해외 판매량이 국내 판매량의 약 3.5배 수준이다.

쏘울의 월간 판매량은 지난해 8월까지만 해도 수십대 수준이었지만, 이후 200~300대 수준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6월 807대, 7월 725대, 8월 796대 등으로 최근 수개월간 경종 뚜렷했다.

특히 유럽과 미국 등 해외에서는 지난 5월 296대에서 6월 586대로 판매가 대폭 늘었다. 지난 8월에는 676대로 출시 이후 가장 많은 판매를 기록했다.

67대 가운데 유럽 판매가 531대로 가장 큰 몫을 차지했으며 미국 93대, 캐나다 51대 순이었다.

쏘울 EV는 8월에는 독일 전기차 시장에서 점유율 25%를 차지하면서 아우디 'A3 e-트론'과 테슬라 '모델 S' 등을 따돌리고 1위에 오르기도 했다.

국내 판매량 역시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



### 기아차, 3개 대학에 쏘울 협찬

8월 기아차 광주공장 분관 앞에서 김중용 기아차 광주공장장(앞줄 오른쪽에서 네번째)과 이기근 기아차 노조 광주지회장(앞줄 오른쪽에서 세번째)이 전남과학대, 순천제일대, 전주비전대 관계자에게 산학협력 차량으로 쏘울 3대와 스포티지 3대를 전달하고 있다.

8월 기아차 광주공장 분관 앞에서 김중용 기아차 광주공장장(앞줄 오른쪽에서 네번째)과 이기근 기아차 노조 광주지회장(앞줄 오른쪽에서 세번째)이 전남과학대, 순천제일대, 전주비전대 관계자에게 산학협력 차량으로 쏘울 3대와 스포티지 3대를 전달하고 있다.

대 등의 영향으로 차츰 증가하는 추세다.

쏘울 EV는 수출 물량이 본격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라 향후 해외 판매가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폴크스바겐의 디젤차 배기가스 조작 사태를

계기로 디젤차의 유해성이 논란이 되고 있어서 전기자인 쏘울의 판매 전망은 더욱 밝다는 평이다.

쏘울 EV의 최대 장점은 1회 충전 최대 주행거리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부족

한 국내에서 쏘울 EV는 1회 충전으로 148km를 주행할 수 있는데 이는 경쟁 모델인 SM3 Z.E(135km), 닛산 리프와 BMW i3(각 132km) 등보다 앞선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꺾일 줄 모르는 광주 아파트값

### 이사철 맞아 수요 늘어...매매 0.15%·전세 0.17% ↑

추석 연휴가 끝나고 가을 이사 수요가 움직이면서 광주 지역 아파트 매매가가 0.15% 상승하는 등 전국의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감정원은 5일 기준 전국의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지난주와 같은 0.12% 상승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9% 상승해 지난주(0.29%)보다 오히려 떨어졌다. 지역별로는 제주(0.19%), 대구(0.20%)중 동대문구(0.46%)는 재개발 단지 일반분양가 상승에 따른 영향으로 상승세를 보였으며 강남권(0.18%)은 전세공급 부족으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지역별로는 제주(0.22%), 서울(0.19%), 부산(0.17%), 경기(0.16%), 광주(0.15%), 울산(0.15%), 대구(0.15%), 인천(0.13%) 등의 순으로 상승했고 충북(-0.05%)은 유일하게 하락했다.

전국의 아파트 전세세도 지난주와 같은 0.17%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0.26% 상승해 지난주(0.29%)보다 오히려 떨어졌다. 지역별로는 제주(0.19%), 대구(0.17%), 인천(0.17%), 광주(0.17%), 부산(0.15%), 강원(0.12%), 울산(0.11%) 등의 순으로 모든 시도에서 상승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7층 상가건물매매**  
(북구 우산동 구호전 사거리)

**7층 건물 (사우나 건물)**

- ✓ 1층 (커피숍 입점완료)
- ✓ 2~5층 (사우나, 주택)
- ✓ 6~7층 (설계사, 건설사)

월수익 **950만** (1년 1억2천만)  
사우나 직접 운영시 **1,800만**  
(보 1억5천, 용 6억)

**매가 14억 5천**

**수익성 상가** <상무지구 오피스텔 >

- 상무지구 정연 오피 3층 (30평) 한국은행 앞 (보2천,월7만) 임대완료 → 매가 1억3천만
- 상무지구 수림 오피 6층 (23평) 롯데마트앞,상무나이트 옆 (보5백,월 45만) 임대완료 → 매가 8천 5백만
- 북구 중흥동 원룸 상가 (전대 정문2코너) (월수익 500만) (1층상가, 2가) (4층 주택) (2~3층-원룸 10개) → 매가 6억8천

**3층 상가 매매**  
(수완동, 4층중 3층)

**85평**

**신한은행 뒷편**  
(상가 밀집지역)  
**모아엘가 앞 (6천세대 밀집)**

보 3천, 월수익 **180만**  
(용 2억5천만) 실투자 → **1억**

**매가 3억 7천**

**수익성 상가 매매** (근린상가)

- 동구 수기동 제일 오피 6층 (45평) (보 1천,월60만) 임대완료 (용 5천) → 매가 1억 1천만
- 나주 삼영동 (영산포) 2층상가 매매 월수익 200만(용 1억 2천) → 매가 2억 9천만
- 광산구 월계동 1층상가 매매 (40평) (보 8백,월 80만) (용 4천) → 매가 1억 5천만

**수익성 상가 매매**  
근린상가 매매(오피스텔)

- 상무지구 정연오피 3층(30평) 한국은행앞 (용5천)보1천, 월70만 → 매가 1억3천만
- 상무지구 수림오피 6층(19평) 롯데마트 앞 상무나이트옆 (용4천)보5백, 월42만 → 매가 7천5백만
- 상무지구 수림오피 6층(23평) 롯데마트앞 상무나이트 옆 (용5천)보1천, 월50만 → 매가 8천5백만
- 상무지구 수림오피 6층(13평) 롯데마트앞 상무나이트옆 (용2천)보3백, 월33만 → 매가 5천만
- 수완지구 3층상가(85평) 신한은행뒷편,모아A.P.T 6,000세대 앞 (용 2억5천)보3천, 월수익 180만 → 매가 3억8천만
- 동구 수기동 제일오피 6층(45평) 울수리,전양중음,임대완료 (용5천)보1천, 월60만 → 매가 1억1천만
- 서구 성촌동 대운포 2층(11평) 운전역1번출구 3분 (용2천)보3백, 월32만 → 매가 3억8천만
- 광산구 첨단지구 월계동 상가(40평) (보8백, 월80만)용4천 → 매가 1억5천만
- 광양 광영동 상가A.P.T 12층(15평) 상가밀집지역, 아파트단지 (보2백, 월25만) → 매가 3천8백만

**법률경매**

**수익성상가(근린상가/구분상가)**

- 서구 치평동 (토15평,건90평)감정가 6억3천5백~최저가 4억4천
- 동구 금동 (토19평,건149평)감정가 5억1천~최저가 9천3백
- 동구 금동 (토18평,건 134평)감정가 4억7천6백~최저가 1억
- 서구 치평동 4층중3층(토 4.2평,건18.6평)감정가 2억9백~최저가9천3백
- 서구 치평동 (토30평,건56평)감정가 3억93천~최저가 1억8천(지하)
- 광산수원(토122평,건78평)감정가16억2천~최저가19억
- 북구신용동(토32평,건48평)감정가4억2백~최저가1억8천
- 서구 치평동(토3평,건13평) 감정가 2억3천3백~ 최저가 1억3천만

**수익성상가(근린주택,오피스텔)**

- 서구 금호동 (토 63평,건111평) 감정가 3억3천~ 최저가 3억3천
- 동구학동 (토138평,건545평)감정가 23억~16억

**수익성상가(근린시골,통건물)**

- 북구 누문동(토305평,건238평)감정가 11억7천~8억2천
- 광산구 남산동(토258평,건150평)감정가4억8천~최저가 2억6천8백
- 북구 중흥동 (120평,530평)감정가13억7천~최저가 6억1천5백
- 동구 수기동 (토130평,건320평)감정가 1억7천~최저가 6억
- 서구 농성동 (토 86평,건263평)감정가 5억7천~최저가 4억
- 북구 구하동(토337평,건509평)감정가 22억3천~최저가 15억6천
- 광산구 쌍림동 (정례식장) (토 516평,건920평) 감정가 36억7천 → 최저가 29억
- 서구 광천동 (토지 76평,건86평) 감정가 3억2천 →3억2천

**모텔/주유소**

- 광산구 쌍림동(숙박시설)토357평,건680평)감정가27억~최저가15억
- 광산구 쌍림동(숙박시설) (토154평,건419평)감정가 15억~최저가 8억4천

**경매교육**

**경매 이제는 대중화시대!!**

바로실천 교육듣고 수익창출가능

매주 수요일 (오전,오후반)  
주말반 (오전,오후반)

경매기본교육부터 실천까지

(입찰, 매매, 임대~개발기획까지)

원스톱 강의

직원구함 (남,여직원)  
경매, 부동산 배우실분  
경매컨설팅 교육